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제 목	[보도자료] 197개 단체, 1,154명 개인 연명, “차별과 혐오조장과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한다” <이제는 만들자, 성평등한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시민사회 요구안 발표
발 신 일	: 2022년 9월 28일 (수) (총 15쪽)
문 의	: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lgbtqact@gmail.com / 010-8790-1759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22개 단체로 구성된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는 <이제는 만들자, 성평등한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에는 포성넷을 포함, 전국 197개 시민사회단체, 1,154명의 개인이 연명했습니다.

3. 9월 28일부터 각 과목별 대면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2차 의견 수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성넷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해 나갈 것 입니다.

4.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문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첨부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 9. 28.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발언 1]

한송이 (탁틴내일)

현재 팬데믹, 기후위기, 전쟁, 빈곤, 인권 침해 등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OECD는 2000년대 초반부터 Deseco 프로젝트(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y,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 역량 및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창의력'이 21세기의 핵심역량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인지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및 ICCS(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국제 청소년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그와 관련된 태도나 활동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이 주를 이루는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가치관, 성찰 능력 등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의 민주적인 활동, 토론 문화, 학교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성평등한 교육의 원칙이 지켜지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교과 학습과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며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해 계속 개정되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11번째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학생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모아진 일부 의견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퇴보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국민의 의견이라 언급하기도 힘든 혐오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 동성애나 임신중지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 성소수자의 사례를 삭제할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로는 성평등이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평등은 성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과와 생활 영역에서 성평등이 기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 공개된 시안을 살펴보면 사회과에 '성 불평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 보건과에는 '섹슈얼리티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술/가정(실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도덕과에서는 주로 성평등의 윤리적 정당성 정도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성평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도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라 하기엔 내용이 빈약합니다.

유네스코는 정상적인 섹슈얼리티라는 기준을 만들어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과 함께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리에 근거를 두고 성과 젠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광범위하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연령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증거에 기반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원칙들은 성교육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정부는 교육과정 전반에 성평등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탐구하고 의사결정 기술과 의사소통 및 위험감소 기술을 쌓고 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발달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정보, 성취해야 할 기술, 함양해야 할 태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평등한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으로서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성별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과 성적 친밀성, 재생산 등과 관련된 경험을 포괄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권리를 존중하며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 촉진을 지향하고 타인의 권리와 건강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권리 행사를 장려하고, 신체적인 건강 촉진 및 물리적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 전반에 대한 포괄적 행복을 목표로 하여 섹슈얼리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견지함과 동시에 성평등,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다양성 포용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 너무나 흔하지만 그만큼 잘 맞는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먼 훗날까지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기에 일부의 편협한 시각이나 민원 등에 교육과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9월 19일 ‘국민참여소통채널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교육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아이들이 꼭 상식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에 기반을 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의견들이 자칫 특정 성 집단에 대한 혐오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부디 이 답변이 진심이길 바라며, 성평등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언 2]

박한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박한희입니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이 다수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답답하면서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분노는 이러한 이러한 의견을 내는 이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화가 납니다.

성평등은 안 되고 양성평등은 된다. 도대체 어떤 근거도 없는 이러한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나온 것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대전시가 만든 성평등 조례에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들어가자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삭제하라는 말도 안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소수자를 지우는 것에 동조해서 교육부는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한 국가수준의 성교육표준안을 2015년 배포했습니다.

그후로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므로 양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보수개신교 등 성소수자 혐오세력으로부터 공공연히 나오게 되었죠. 이 때 정부가 해야 했을 일은 무엇일까요. 성평등은 좋은 용어고 양성평등은 나쁜 용어다. 아닙니다. 그 어떤 용어를 써도 그것이 성소수자를 비롯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어떠한 정책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국회가 오히려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섰습니다.

설마 이게 전 정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애초에 대선 때부터 이른바 ‘젠더갈등’을 교묘히 이용하며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역시 이 사태를 초래한 공범입니다. 그 결과 2022년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이 중요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놓고 또 다시 성소수자를 포함할 거냐 말거냐는 의미 없는 논쟁을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의미없는 논쟁입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규범, 평등과 존엄을 이야기하는 헌법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보편적 윤리관념에

비추어보아도 이런 주장이 허용됩니다. 교육에서 차별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어떠한 학생들의 존재가 지워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80%가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92%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혐오발언을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비롯해 54%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적이지만 성소수자가 아닌 청소년에게도 비극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들을 배워야 하는 학교에서 단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르다고 어울릴 수 없는 것, 누군가는 차별과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는 것, 이런 일들이야말로 청소년의 가치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제는 정말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오늘 공청회가 진행되는 도덕교과 시안에는 기존의 성평등 용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부디 이것이 시안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진행될 공청회를 비롯해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남발되는 혐오발언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2 교육과정이 정말로 성평등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수정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차별과 혐오에 동조할지 말지의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흔들림없이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실질적 논의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발언 3]

김수진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모임 아웃박스)

안녕하세요, 저는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모임 아웃박스에서 활동하는 초등교사 김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각에도 교실에서 수업 중인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을 대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교실에서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실은 사회를 닮습니다. 우리 사회는 혐오가 넘실댑니다. 젠더 권력관계에 존재하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은 젠더 기반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소수자를 향한 서슴지 않는 혐오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어린이 청소년이 젠더 범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혐오의 너울은 교실로 쓸러와 학생들을 집어삼킵니다. 혐오와 차별과 편견에 잠식되기 전에, 우리의 교실에는 성평등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평등 교육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성평등 교육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를 이해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힘을 길러냅니다. 또 사회의 불평등을 찾아내는 관점을 기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밝히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내는 교육의 목표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평등은 늘 등한시되고 지워졌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급별, 과목별 교육과정에서는 성평등 관점의 성취기준과 해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2022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으로 용어가 바뀐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초등학교 전 과목 그 어디에서도 '성평등'이 명시된 성취기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평등교육이 성취기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성평등 교육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교실 어디에도 없는 교육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실의 배움은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중앙집권적 체제와,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의 자율화 정책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가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겠지요. 아웃박스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협력하기 위해 모인 교사 모임입니다. 그러나 성평등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겁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성평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자체가 없으니,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는 되려 비난과 공격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성평등을 지워내는 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교육이자, 우리가 원하는 시민상입니까?

성평등 교육은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수학 시간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그래프를 그릴 때, 미술 시간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때, 체육 시간에 축구공을 차며 운동장을 뛰어 다닐 때도 성평등 관점은 필요합니다. 남성 중심적 사고와 고정관념, 이분법적 지식 체계와 해맑은 혐오를 벗어나 성평등 가치를 담아내는 교육과정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 권력의 무기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권력의 반대편에서 소수자의 목소리, 주변화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교육은 또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입니다. 순수한 결정체의 객관적인 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각 시대와 문화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는 성평등 감수성을 가진 시민이 필요합니다. 사회 불평등 요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찾아내며,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성평등 시민이 간절합니다.

이제 저는 교실로 돌아가 학생들과 함께 성평등 가치를 맘껏 논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성평등 수업을 할 때마다 사회를 위한 멋진 의견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실을 상상해봅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확보되는 성평등 관점을 근거로,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성평등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성평등한 교육과정이 완성되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저는 양육자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도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성적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이미지와 내용을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래야 한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 등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주로 접하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미디어에서는 성적지향, 여성의 재생산권,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는 이미 혐오와 차별의 장이 된지 오래입니다.

어디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역할은 “학교 교육”이 해야 합니다.

성교육의 첫발걸음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 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성별과 다양한 성적지향이 섞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고 그 권리를 행사하게끔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합니다. 그 인권에, 그 권리에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등. 그 많은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 진정한 인권교육이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지금도 돌봄을 제외하고 “교육”만 하겠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학교에서 “교육”만 하라고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이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알려주고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육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내가 어떤 존재로든 이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니 너가 선택한 삶을 맘껏 살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자로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지난 9월 19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주요 의견을 밝히겠다며 차관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서는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그 중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주요 국민 의견' 요약자료에 '성 관련 용어 및 문장 기술에 대한 수정 요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회, 도덕, 보건, 실과, 초등통합 등 여러 교과에 걸쳐 기술했다. 그 내용은 성소수자 용어 삭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동성애와 성전환 관련 내용 제외, 낙태 관련 내용 삭제,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 삭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재생산권 용어 삭제, 성인지감수성이나 젠더, 정상가족신화 용어 삭제가 대부분이다. 차마 일일이 서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의견들이다.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움직임은 이미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번 국민참여소통채널 역시 '국민 의견'이라는 미명 아래 혐오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혐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흐름을 무시한 채 교육부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부각시켜 성평등 가치를 위협했다. 가부장제 사회의 약자이자 피해자인 성 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페미사이드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해)와 국가에서조차 존재를 부정하는 성소수자 혐오가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 교육의 역할은 자명하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나침반이며 교육과정은 국가 공동체의 존망을 가르는 표준 지침이다. 작년 11월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에서 천명했던 바와 같이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존재 자체로 살아가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받고 서로 돌보며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평등한 교육과정, 다시 말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세상에 단 두 개의 성별만이 있다는 거짓을 재생산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사용해야 하며 '성 소수자'나 'LGBT',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교육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중지권, 성과 재생산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정확한 명칭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담아내야 한다. 가부장제 하에서 발생하는 지배와 착취의 관계를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키워드를 나열하거나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고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현해내야 한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의 탈을 쓰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길 바란다.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청회에서도 혐오 발언이 나올 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 폭력은 없다는 정권의 폭주에 더 이상 편승해선 안 된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이제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만들길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인지적 용어 사용하라!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혐오를 배제하라!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관철하라!
- 성평등한 교육과정 교육부가 책임지고 만들어라!

2022년 9월 28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총 22개 단체)

(남다른청소년성교육연구소, 장애여성공감,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초록상상, 한국다양성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성평등연구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여성의전화, (사)탁틴내일, (사)인천여성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초등젠더교육연구회아웃박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7개소), 한국YMCA, 서울여성회, 딱따구리.

시민사회요구안 연명 단체 (총 175개 단체)

(사) 대구여성회, (사) 진해여성의전화, (사) 강릉여성의전화, (사) 김해여성의전화, (사) 장애여성네트워크, (사) 탁틴내일, (사) 포항여성회, (주) 상담사그룹서로오롯, 가족구성권연구소, 강동성문화연구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여성연대,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릉.월계동 여성회(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문화연구local+,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플랫폼 이탈, 극단 서울괴담, 극단Y,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남부교육문화연대,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충북지역위원회,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레드스타킹, 마트노조 홈플러스부 칠곡지회, 매마토,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화나눔다가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보건교사회, 보라너머, 부너미,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람과평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문화연구소 라라, 성문화연구소 라라스쿨,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마을온예술,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성평등교육활동가모임 모듈, 성평등국어교사모임,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숙명앰네스티,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심리상담 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아수나로 양산지부추진모임, 아웃박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오토북코리아,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소소, 장애인 푸른 아우성,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괴산증평지회,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교조 영동지회, 전교조 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동구지회,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교조 음성지회, 전교조 충북지부,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학생협회, 전국학생협회 경상남도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정릉종합사회복지관노동조합, 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부천시병위원회, 정의당 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인 위원회,
 진해여성의전화부설나다움성인권교육센터, 차별금지법제정총북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책방토닥토닥, 청소년성소수자위끼지원센터땡땡,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길잡이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충북대 성소수자동아리 레인보우페이지, 충북평등교육학부모회, 택시현장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표현의자유포럼, 학교를 바꾸는 페미니스트 <나다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공학대학교 퀴어 소모임 레인보우 사우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양대학교 에리카 성소수자동아리 하이퀴어(HYQE),
 함안성가족상담소, 행동하는교사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수도권본부
 성평등위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QTQ(Queer Teachers with Queers, 퀴어와 함께하는
 퀴어교사모임).

시민사회요구안 연명 개인 (총 1,154명) (명단 생략)